

“도서정가제 순기능 계속 살려야”

3년마다 타당성 검토... 11월 일몰 시한 동네책방 활성화·문화 플랫폼 역할 문체부 재검토 움직임에 출판계 우려

지난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 일몰이 오는 11월로 다가오면서 현행 도서정가제를 재검토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출판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도서정가제 골자는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제한하며 마일리지, 할인권 등 5%를 포함해 총 15%까지 할인을 허용하고 있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한 책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오는 11월 20일이 일몰 시한이다.

이번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오랫동안 민관협의체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합의안을 보유하고 갑자기 현행 도서정가제 전면 재검토로 선회하면서 불거졌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 개편을 위한 민간협의체 ‘합의안’을 파기했다며 이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출판인회의는 입장문에서 “문체부 주도하에 구성된 민간협의체가 총 16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낸 개정안은 도서정가제의 보안을 위한 출판계 상호 이해와 조정의 결과물인데 지난 7월 말 문체부가 이런 과정에 대해 부정하고 재검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원 서점인 이진숙 ‘숨’ 대표는 “지난 11월을 전후에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있었는데, 내용이 대부분 사실을 왜곡한 거짓 정보였다”며 “합의안을 무시하고 현행 도서정가제 재검토를 통보한 문체부와 거짓 정보를 유포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단체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출판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대형 출판사나 온라인 서점에서는 지역을 다루는 책은 거의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지역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책이 출간되거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자리한 동네 책방 '러브앤프리'는 1층은 서점, 2층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문화 공간이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나 아카이빙 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도서정가제 이후 나타난 긍정적 효과다. 죽어가던 동네책방이 살아나고, 서점이 새로운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도서정가제의 순기능 때문이었다.

실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순수 서점의 수는 1996년 5378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여 년 동안 감소세였지만 2014년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감소 폭이 현저히 완화됐다. 이는 도서정가제가 지역 서점의 생존 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했다는 방증이다.

전국 동네책방네트워크에 따르면 2015년 101개에 불과했던 독립서점은 2020년 650개로 대폭 늘었다. 신생 출판사 또한 2013년 4만4148개에서 2018년 6만1084개로 증가했으며 신간 발행종수도 2013년 6만1548종에서 2017년 8만1890종으로 늘었다.

동네책방네트워크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불안전하지만 15%로 할인을 묶어둔 최소한의 안전장치 덕분에 전례 없는 독립서점들의 증가세와 그로 인해 책문화가 풍성해질 수 있었다”며 “당면한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지금의 정가마저 무너뜨리는 시도는 동네 책방들의 쉼터와 양서를 퍼내는 소규모 출판사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라고 강조했다.

한국작가회의도 1일 성명서를 내고 도서정가제가 중소형 출판사와 서점 등이 상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작가회의는 “도서정가제는 서점과 출판계에 만연했던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성 있는 출판사와 독립 서점이 늘어나고 있다”며 “순위표에 오른 인기 있는 책을 손쉽게 살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은, 작은 서점 주인이 고민 끝에 진열해 놓은 작고 개성 있고 의미 있는 책들을 접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역 출판사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문학을 송광통 대표는 정책 보완이 우선이지 폐지 수준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송 대표는 “지금 한창 개성적인 1인 출판사나 골목서점이 생겨나고 있는데 도서정가제가 폐지되거나 개악이 되면 다시 시행 이전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 입고하는 중소 출판사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책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손해는 결국 소비자인 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디어아트로 본 ‘층’에 대한 기억과 사유

광주문화재단, 기획전 ‘층간기억’ 강수지 작가 등 참여...온라인 상영



김형숙 작 'New Home Full'

“층은 우리의 기억이다. 때론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수많은 기억의 ‘겹(layer)’이다. 층 사이 얽히고 설켜 무성한 형태들 가운데 기억을 꺼내고 ‘층’의 기억을 불러온다.”

층에 대한 기억과 사유는 저마다 다르다.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관점과 시선으로 층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층간기억’을 모티브로 하는 미디어아트 전시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미디어아트레지던시 기획전 ‘층간기억’을 온라인 상영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수지, 김형숙, 이뿌리(이근우), 유지원, 김명우 등 입주작가 5명의 작품을 볼 수 있다. 5명의 다른 작품 세계를 담은 인터뷰 영상과 작품이 온라인을 매개로 관객들을 찾아가는 작품 상영시간 45분, 작가 인터뷰 상영시간 15분. 김명우 작가는 어린 시절 오락실에서 본 동전타에 대한 기억과 지금의 돈에 대한 생각을 해석한 ‘BUILD_TOWER OF LIFE’를 선보인다. 작가는 그동안 매체 발달 가속화에 따른 상황변화를 주제로 영상과 설치를 작업해 왔다.

자연을 배경으로 글씨를 쓰는 이뿌리 작가는 유년이라는 기억 장치를 관객과 소통을 시도한다. 유년의 느낌을 살려 땅과 하늘, 사물에 글씨를 쓰는 과정을 담은 ‘목부의 글씨’는 그 자체로 힐링을 준다.

강수지 작가의 작품 ‘REFLECTION 01’은 ‘사

랑’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연인 간 사랑이 아닌 어떤 사람이든 동등한 위치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유지원 작가는 프랑스 유학시절 이야기를 ‘예술가의 여정’으로 풀어낸다. 자신의 길을 가는 예술가의 삶에 초점을 맞춘 작가는 “기억은 오래될수록 변형된다”는 사유를 견지한다.

김형숙 작가에게 기억은 ‘기억할 수 없는 기억’이라는 반어적인 의미로 다가온다. 작가는 유년시절을 보냈던 삶의 터전이 도시계획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버린 공간을 영상작품 ‘New Home’으로 표현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문화재단TV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1h8N8uRwHc>), 미디어아트 플랫폼 홈페이지(http://www.gjmp.kr/index.php?mid=page_fjqV33)에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9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뿌리 작 '사냥'

문체부 내년 예산 6조8273억...올보다 3470억 증액

코로나 이후 문화사업 지원 대폭 반영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문체부 예산안은 총 6조 8273억원으로 올해 대비 3470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과 문화를 준비하는 사업과 피해를 본 산업의 생태계 지원 등에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이 문체부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환경 중심의 문화콘텐츠 사업 예산을 늘렸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49억원)과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20억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 제작 지원’ 사업(290억원)으로 온라인 공연 전용 스튜디오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공연이 중 소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음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 이하에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은 개인별 연

간 10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내년 근로자 휴가 지원 예산안은 110억원을 편성해 10만명을 지원한다.

코로나 시대에도 공연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별 특성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함께 누리 지원’ 예산은 79% 증액한 205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5세대(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증강·가상 현실(AR·VR), 홀로그램 등 실감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15개 세부과제에 1335억원을 투자하며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과 문화 분야를 접목하는 융합콘텐츠를 개발하는 10개 과제에는 521억원을 투입한다.

/연합뉴스

국립국악원 ‘국악기 디지털 음원’ 누리집 개설

국립국악원은 국악기 음원을 이용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누리집과 별도로 ‘국악기 디지털 음원’ 누리집을 1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악원은 기존의 누리집 내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별도의 누리집으로 분리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 국악기 단음 연주 음원 데이터 외에 일정 마디를 반복해 연주하는 ‘악구 음원’도 추가했다. 단음 음원은 기존 48종의 악기에서 52종으로 확

대해 총 407개의 음원을, 악구 음원은 19종의 악기와 성악을 바탕으로 제작한 총 2226개의 음원을 새롭게 제공한다.

모든 음원은 웨이브 파일로 제공하며, 출처를 밝히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국악기 디지털음원 누리집(www.gugak.go.kr/digitaleum)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머리해요(미용실)</p> <p>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1차입 개업할인이벤트 컷트8,000원 염색20,000원 펌25,000원 크리너50,000원 셋팅50,000원 매직50,000원 ☎ 062)511-2337, 010-6886-3171</p>	<p>매산철거·삼보소개소</p> <p>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모래운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텝, 특수파망,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패턴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잠·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p>	<p>대연건설</p> <p>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작·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p>	<p>보광세탁소</p> <p>동구 자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명품옷수선전문점</p> <p>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옷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본위 ☎ 010-2474-1457</p>	<p>인철(仁喆)익스프레스</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p>새서림 떡방앗간</p> <p>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약초당건강원</p> <p>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꽃·홍삼·생약초즙·봉어즙·장어즙 땀발증·침·뜸·포도즙 각종고급입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p>	<p>비비가</p> <p>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빔밥전문가(비빔밥, 돌솥비빔밥, 연어초밥, 화이트) ☎ 062)229-1008, 010-8572-0999</p>	<p>일번지식당</p> <p>나주시 영산포로284(구.영산포역도로변) 흡연소방, 돼지기요리당, 추어탕, 소갈비살 순두부찌개, 돼지기불고기, 불고기비빔밥, 삼계탕 각종 모임 환영 ☎ 061)335-1110, 010-8543-9617</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우리식당</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어주민물장어탕</p> <p>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82번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 ☎ 061)285-1255, 010-8620-8171</p>
<p>광호익스프레스</p> <p>북구 자산로5(신안동) 포장이사/일반이사/사무실이전/이사점보관 ☎ 062)522-1414, 010-3605-1445</p>	<p>석당화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the 사라해어</p> <p>북구 복문대로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 컷, 염색, 일반편, 매직, 셋팅, 매직셋팅, 크리너 ☎ 062)522-2380, 010-8200-9182</p>	<p>초대화랑</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명품크리닝전문점</p> <p>서구 치평동 275-22(우리들병원옆) 명품스키즈·운동화·가방·캐주얼·의류·복합·수선일체 주인 직접명품세탁, 유모차 전용 세탁소 오픈 (비대면 수거배달, 문자접수) ☎ 010-6559-6700</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